

제1주제 – 시대적 전환기, 국토, 도시, 환경의 과제

2015년 9월 24일

주제발표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 변화의 특징과 공간적 함의: 시간(時觀), 장관(場觀)의 통합적 접근”

초청토론 |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

진행 | 김광중 (서울대 교수,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주임교수)

발제요지

한국은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 가운데 농경사회에서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정보사회를 거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는 ‘해양화’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다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했던 ‘강제된’ 해양화는 광복 이전까지 중국을 통해 대륙과 교류했던 ‘대륙화’와 대비된다. 한국의 성장은 괄목한 만한 국력과 문화적 역량의 신장을 가져왔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성루 전승절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총장 부부 등 한국인이 시진핑과 나란히 중심자리를 채웠다.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Une Breve Histoire de l’Avenir”(2006)라는 저서에서 “한국은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모델이 되어 그 탁월한 기술과 문화적 역동성으로 세계를 매혹한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 모델을 ‘성공하기 위한 모델’로서 모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고속, 압축성장의 과정을 거친 한국의 변화는 ‘근대

화혁명’으로 볼 수 있다. 빠른 시간에 폭넓게 전통을 탈피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과정은 ‘대극성(對極性)’을 띠고, 한국인의 삶은 ‘극단의 반동성(extreme reactionism)’을 나타낸다. 빠른 시간 내에 주거양식과 종교를 바꾸었고, 인구, 가족, 사회관계에서 해체현상까지 보인다. 최근 들어 ‘헬조선’, ‘불행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갈등, 불신, 분열, 와해 현상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근대화 과정과 비교해서도 독특한 한국의 ‘도착적인 근대화(perverted modernization)’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초고속 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1인당 거주가능면적이 193평에 불과한 세계 최고의 초밀집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류역사상 최고의 에너지 소비밀도를 나타낸다. 가용면적당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일본의 1.5배, 영국의 6.6배에 이른다.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지만, 에너지 밀도, 전기화 밀도, 원전 밀도는 모두 세계 1위이다.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앞선다. 이 모든 에너지는 96.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안보취약성은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웃한 중국

의 도시화에 따른 환경영향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1세기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메가시티가 집중될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도시문제군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들 인구를 지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농경지, 환경조건의 확보는 지구적 도시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일반국가 개념이 아닌 하나의 초고밀 도시국가로 보아야 하며, 공간적으로 보면 21세기 글로벌 문제군의 테스트베드로서 21세기 인류발전 대안을 한국이 창조해 내야 한다. 한국의 독특한 근대화 혁명과 도착적 근대화 경험을 수렴 여과 승화시키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지속가능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다시 대륙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나 '해양화의 세계화'는 역사의 방향이며, 4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반도국가로서 전통적 대륙화와 근대적 해양화의 경험을 융화하고 반도국가의 특성을 살려 대결 충돌이 아닌 가교 조정의 중심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럽의 폴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일류국가, 일류민족이라야 세계의 해양화 속에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룩한 기적을 승화시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에서 비(非) 대칭적으로 4강을 극복해야 하며, 문화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엘리트 국가가 되어야 한다. 시간적으로는(時觀) 어제, 오늘, 내일을, 공간적으로는(場觀) 한국, 이웃나라, 지구촌을 통합적이면서도 균형있게 보는 안목과 지혜, 중용적 성숙이 요청된다. 그래야 한국사회와 지구촌의 생명, 안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발전모델을 'Pax Universa'(지구촌평화)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틀이다.

초청토론

조명래 교수는 한국사회의 대극성(對極性)을 '공간의 극대화'라는 각도에서 해석했다. 수도권 집중, 높은 에너지 소비, 아파트 개발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발전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을 주목했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국가 발전을 큰 스케일로 접근

하는 것이 관행화 된 해양화 전략의 속성일 것이라고 보고, 중앙집권형 경제적 가치 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지방과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제는 대극성을 견제하고 극복해 나갈 때라는 견해이다. 조명래 교수는 사이버 공간이 보편화되고 글로벌 시대가 된 21세기에도 국가적 관점, 민족적 관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와 민족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발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발제했던 김진현 장관은 사이버 세계가 만연하더라도 전쟁, 금융위기, 무역중진 등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한국의 국가발전은 민족적인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상인 교수는 한국이 조선시대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항상 바다를 통해 개방되고 교류했던 점을 들어 한국의 근대화 성공을 전적으로 해양화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냉전이 해체되고 통신교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해양화와 대륙화를 양분하는 것의 실익도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해양화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북한을 해양화로 유도하는 국가발전전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는 조명래 교수의 견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의 도시연구가 도시공학, 교통공학, 부동산연구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적 접근의 취약성은 도시 르네상스 시대에 효율적으로 편승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간계획과 정책을 지금처럼 국토교통부가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